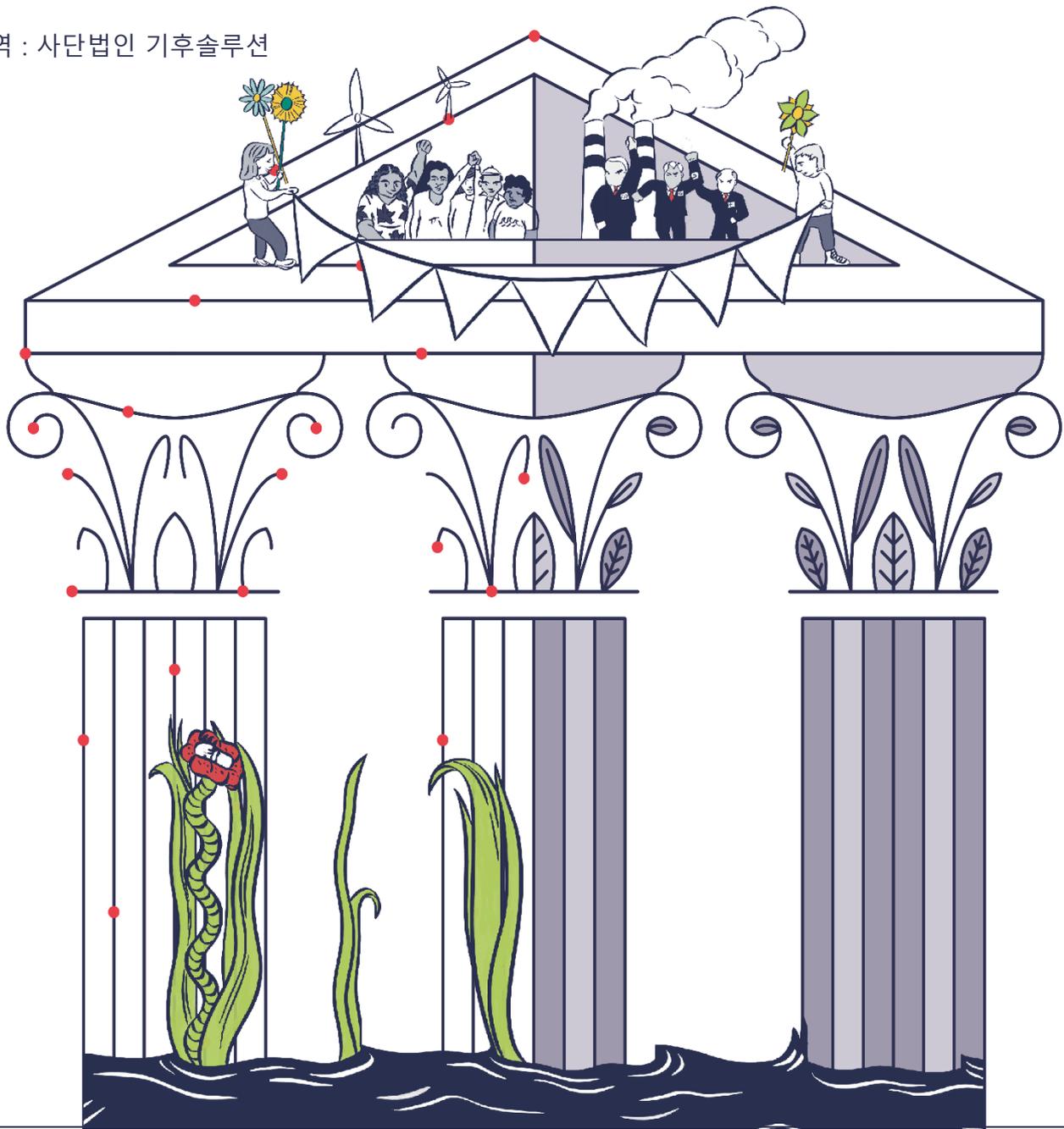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번역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Grantham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이하 "그랜덤 연구소")는 2008 년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 설립되었다. 그랜덤 연구소는 경제학 뿐 아니라 금융, 지리, 환경, 국제 개발 및 정치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정책 관련 연구,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세계 최고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랜덤 연구소는 그랜덤 환경보호재단(Grantham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데, 해당 재단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내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Grantham Institute -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www.lse.ac.uk/granthaminstitute

저자 소개

Joana Setzer 는 그랜덤 연구소의 조교수 연구원이다.

Catherin Higham 은 그랜덤 연구소 내 세계 기후변화법 프로젝트(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project)를 담당하는 선임 정책연구원이자 코디네이터이다.

감사의 말

빠르게 진화하는 기후 소송의 글로벌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Dr Maria Antonia Tigre, Margaret Barry, 그리고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 피어 리뷰어 네트워크(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s Network of Peer Reviewers)의 지속된 노력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 보고서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와 수많은 작업을 열정적으로 지원해준 Emily Bradeen 과 보고서의 전체 완성도를 높여준 Tiffanie Chan 에게 특히 감사를 표한다. 또한 훌륭한 연구 지원을 해준 Eoin Jackson 과 Meredith Warren 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활용된 박사학위 연구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아낌없이 공유해준 Gastón Medici-Colombo 와 Nina Koistinen 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주신 모든 동료들 - 그랜덤 연구소의 Joy Reyes, April Williamson, Ben Batros, Carolina de Figueiredo Garrido, Danielle de Andrade Moreira, Douglas Kysar, Filippo Fantozzi, Gabriella Locati, Harro van Asselt, Jacqueline Peel, Jasper Teulings, Joe Udell, Luciana Tse, Rebekkah Markey-Towler - 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중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Dimitri de Boer 와 Boya Jiang 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보고서를 위한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주신 Gabi Gershuny 와 관련 사건 관련 사진을 친절하게 공유해준 기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 및 제작 관리를 담당한 Georgina Kyriacou 와 보고서 디자인을 담당한 Digitronix 에 감사드린다.

Joana Setzer 와 Catherine Higham 은 그랜덤 환경보호 재단과 쿼드러처 기후 재단(Quadrature Climate Foundation)으로부터 이 보고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저자들은 이 보고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다른 관계나 활동에 연루된 바 없음을 선언한다. 이 보고서는 저자들의 견해를 담은 것으로, 발간 기관이나 재정 지원 기관의 견해를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오류와 누락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이 보고서는 2025 년 6 월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다.

텍스트 및 보고서 디자인 © 저자들, 2025.

보고서 삽화 © Gabi Gershuny, 2025.

CC BY-NC 4.0 에 따른 라이선스. 상업적 사용 허가는 gri@lse.ac.uk 로 요청해야 한다

추천 인용법: Setzer J and Higham C (2025)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5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핵심 인사이트

- 2024 년 최소 226 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약 60 개국에서 제기된 기후 소송은 총 2,967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 년에 제기된 소송의 80% 이상은 전략적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소송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가율은 지난 한 해 동안 둔화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매년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미국에서는 소송 증가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4 년 미국에서는 총 164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 정치적 역풍으로 인해 전 세계, 특히 미국 내 기후 소송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2024 년에 제기된 226 건의 소송 중 60 건은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상당수는 정부가 제안한 기후 정책의 추진 권한이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기후 소송은 역동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 이 지역에서 파악된 기후 소송의 약 60%가 2020 년 이후에 제기되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후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부수적 쟁점에 해당하는 소송 등 다양한 소송 유형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정부, 규제 기관, 검찰이 기후 소송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 년에는 이 지역 기후 소송의 56%가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는 브라질의 산림 벌채 사건과 같이 특정 지역의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송 전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 기후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2024 년 5 월 각 국가가 해양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감축 및 통제할 엄격한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국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권고적 의견들이 공표된다면 국제법상 기후 의무에 대한 해석 변화 및 신규 소송 촉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전 세계에서 총 276 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최고 법원에 회부되었다. 이들 중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이 117 건, 그 외 지역 소송이 159 건이다. 이 중 80% 이상이 정부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지만, 승소율은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 소송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제 기념비적인 승리로 평가되는 판결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2024 년에는 KlimaSeniorinnen 판결의 집행이 특히 주목받았다.
- 2024 년에 제기된 기후 소송의 약 20%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이사 및 임원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이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전략적 기후소송의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문 서비스업 회사의 촉진 배출량을 문제 삼거나 농업 부문에서의 기후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지적하는 소송이 이에 포함된다.

- Milieudefensie v. Shell 및 Lliuya v. RWE 등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 특히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 소송에서는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에 기후 피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들 소송은 증거 및 증명에 관한 법리적 장애물을 넘어서진 못했다.
- 2024년에는 정책결정자가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다운스트림(또는 "Scope 3") 배출량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앞으로 사법기관들이 탄소 고배출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기후 거버넌스, 입법, 금융 관련 의사결정 등에 기후 소송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잘 기록되는 중이다.

요약

이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주요 동향 및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5월까지 새롭게 발견된 중요한 특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기후 소송 제기 건수, 발생 지역, 소송 주체에 대한 수치적 분석과 함께, 소송의 유형별 경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제공한다. 이 요약본은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 소송은 보다 성숙하고 복잡한 단계로 진입했다

기후 소송은 하나의 분야로서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였다. 2024년에 코스타리카에서 최초로 소송이 개시되면서, 총 60개국에 가까운 국가에서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98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24년 말 기준 총 2,967건(미국 1,899건, 미국 외 1,068건)에 달한다. 이 데이터는 주로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가 제공하는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미국 및 전 세계)에서 수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은 파리협정의 각국 내 이행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소 제기 건수는 2015년 약 120건에서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230건(미국 164건, 미국 외 62건)이 제기되어, 적어도 미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소송 제기가 비교적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연간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이며, 호주, 영국, 브라질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기후 소송에서 사용되는 법적 이론, 당사자, 전략적 접근 방식 등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 소송 중 소위 '전략 소송'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2024년에 187건이 제기되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신규 사건 수를 유지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혹은 청구인)들은 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 행동에 관한 공적 담론을 형성·변화시키거나 특정 행위자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후 문제가 쟁점의 일부로만 다루어지는 소송(예: 지역 환경 분쟁 또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직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후 소송의 복잡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참여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후 소송은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신흥 경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기후 소송의 강력한 성장세가 관찰된다. 특히 헌법 및 환경권과 관련된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26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약 9%를 차지한다. 특히 이 중 60%에 달하는 소송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제기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도 탄소 시장 규제, 에너지 전환 관련 계약, 탄소 흡수원 보호와 관련한 5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이는 아직 글로벌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착되지는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후 소송의 대부분은 NGO 혹은 개인이 (또는 NGO와 개인이 함께) 원고가 되어 제기했으나,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정부 기관, 규제 기관과 검찰이 기후 소송의 주요 당사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글로벌 사우스 기후 소송의 56%가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된 반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서 정부 기관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5%에 불과했다

국제법의 발전으로 기후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주요 국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s of the Sea, ITLOS)의 2024년 5월 권고적 의견에는 국가가 온실가스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이미 최소 하나의 국가에서 재판의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 Court of Human Rights)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적 의견은 2025년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5년 5월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Peoples' Rights)에 기후변화에 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최초의 청원을 제출했다.

정치적 변화가 소송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

2025년 1월 미국의 트럼프-밴스(Trump-Vance)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 정책을 후퇴시키는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역시 각 주에서 진행되는 기후 대응 활동에 대해 점차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 차원의 입법 활동과 시장 원리가 기후 행동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정부의 재생 에너지 인프라 허가 거부 또는 기후 관련 투자 방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등 새로운 소송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럽에서도 규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s)'는 기업에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전환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제 22조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속가능성 규제에 대한 주요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각국 최고법원은 기후 거버넌스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의무에 관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76건의 기후 소송이 최고법원에 회부되었으며, 그중 117건은 미국에서, 159건은 다른 나라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소송이 활성화되어 있고, 연방법원과 주 법원을 따로 둔 사법 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국가다. 미국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들은 헌법상 권리로서 환경 관련 권리를 인정하거나, 최고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강력한 공익 소송 메커니즘을 갖춘 경우가 많다. 결과로 나온 250건의 소송 중 약 50%는 기후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40%는 기후 행동에 불리한 결과가, 10%가 조금 넘는 소송에서는 중립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판례들은 책임과 집행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리 기반 청구는 라틴아메리카와 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몇 건의 획기적인 승소 판결이 있었다. 반면, 유럽 및 북미 법원들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실제적 쟁점의 심사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22 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11 건의 지역 청원은 모두 재판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각 주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Held v. Montana* 소송 및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소송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권리 기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기업 행위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2024 년 제기된 전체 기후 소송의 약 20%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이사 및 고위 임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는 2023 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소송 대상 산업과 쟁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축산업, 식품 소매업과 전문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기업 및 그 책임자들의 기후 책임을 묻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고, 2010 년부터 2024 년까지, 축산업 분야 온실가스배출 문제에 관해 최소 40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주요 배출책임자들에 기후 피해의 재정적 책임을 묻는 시도는 학문적·법적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피해'와 '손실과 피해' 사례를 추적하는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등장과 미국 다배출 기업의 잠재적 책임을 추산하는 연구 프로젝트 등이 해당 분야에 중요한 깊이를 더하고 있다. 아직 기후 책임에 관한 법이 시행된 바 없고, 손해배상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 및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재무적 위험을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에서 발견된 여러 전략, 각 전략을 사용한 사건 수, 현재 진행중인 혹은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 소송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경우**, 2015 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0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기후 소송의 중심축을 유지하고 있다:
 - 2024년에는 14 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전의 승소 사례를 반영하여 전략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획기적인 판결은 동아시아 최초의 승소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으로 기록되었으며(*김도현 외 v.대한민국*),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판결의 집행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사건 판결에서는 국가 배출량 목표와 '공평 분담'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며 쟁점이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판결의 집행은 여전히 일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기후 고려사항 통합' 소송은 여전히 가장 자주 제기되는 전략적 소송으로, 특히 개별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 2024년에 97 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되었다.
 - *Finch v. Surrey County Council* 사건에서의 영국 대법원 판결 및 북해 유전 개발사업을 중단시킨 노르웨이 대법원 판결 등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Scope 3 배출에 대한 사법 판단이 진전되는 중이다. 2025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은 Scope 3 배출 역시 프로젝트의 '영향'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높였다.
 - 그러나 법원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승인을 재고하고 관련 기후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더라도, 현행 법과 정책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한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소송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담보하긴 어렵다.
- **'오염자 부담' 소송은 개념적,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80 건 이상의 오염자 부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4년에는 11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 아직 기업의 전 세계적 온실가스배출행위와 특정 기후 영향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지역적 환경 피해에 대한 기후 손해 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브라질에서 불법 산림 벌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산림 벌채로 인한 CO₂ 배출량에 따라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획기적인 판결 4 건).
- 2025년 5월 독일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의 *Lliuyav. RWE* 판결에서는 기업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법적 원칙이 도출되었다.
- 기업 그룹 전체 차원의 경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5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되었다. 이 중 4 건은 2024년에 제기되었다.

- 독일과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 기반 소송부터 프랑스의 기업 실사 의무에 근거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적 접근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Milieudefensie v. Shell* 건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의무를 가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에 엄격한 배출 목표를 설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기후 위험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한 국가 또는 민간 행위자를 겨냥한 '적응 실패' 소송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점차 주목받고 있다:
 -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총 8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4년에 제기된 신규 소송은 총 7건이다.
 - 영국의 *R(Friends of the Earth Ltd, Mr Kevin Jordan and Mr Doug Paulley) v.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사건에서의 패소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강력한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소송에서는 탄소 예산과 같은 측정 가능한 요소를 근거로 법원이 점차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그와 같은 기준이 아직 부재한 기후적응 계획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
 - 2024년에는 극단적 기상 현상 이후 제기된 주주 대표 소송, 기후로 인한 이주 관련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도 등장했다.
- 올해 보고서에서 새롭게 정의한 '전환 리스크' 소송은 고배출 산업 부문을 넘어 연기금과 은행 규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2024년 총 한 건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다(*김민 외 v. 김태현 외* 1건). 위 사건은 좌초 자산의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2024년 2월 ANZ의 선코프 은행(Suncorp Bank) 인수에 관하여 호주 경쟁심판원(Australian Competition Tribunal)이 내린 결정에서도 장기적인 기업 회복탄력성에 관하여 기후 전환 리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전환 리스크 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법적 논쟁이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점점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전호나 속도에 관한 신규 규제가 도입되거나 기타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관련 소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 '기후 위상' 소송은 여전히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2024년에는 소 제기 추세가 둔화되었다:
 - 2024년에 25건이 신규 제기되어 총 사건 수가 160건이 조금 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많은 사건이 제기되었다.
 - 다배출 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일반 기업 및 금융 서비스 기업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높은 승소율은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기업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함을 보여주지만, 추후 '그린허싱("greenhushing", 기업이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축소하는 행위)'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은 금융 기관, 특히 연기금 기관들의 기후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2024 년에 7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제기된 총 소송 건수는 40 건 이상에 이르렀다.
 - 점점 더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소송을 통해 금융 관련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탈탄소화 및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신규 소송으로는 2025 년 3 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제기된 *Milieudefensie v. ING* 사건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미국 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2024 년의 *Dawson v. Murphy* 사건 판결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주 연기금의 투자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모든 기후 소송이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 행동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후 소송도 계속 다양화되고 있다. 2024 년에 제기된 소송의 약 27%는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기되었으며, 규제 강화에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이나 ESG 정책에 대한 백래쉬 소송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제기되는 법적 주장으로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의무에 관한 신규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독점규제·충실의무법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기후보호 약속 및 지속가능성 라벨링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다.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부터 ESG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소수의 대응 소송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정성, 절차적 하자, 생물다양성 피해 등을 이유로 취약한 지역사회나 환경 단체가 기후 완화 또는 적응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및 소위 'green v. green'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는 기후와 기타 환경 목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및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절차적 안전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한다. 법원을 상대로, 정부와 기업이 기후 관련 행동을 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정 밖의 기후 소송

법정 밖에서도 소송은 기후 거버넌스, 정책 결정 및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권리 기반 소송은 국가 입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의 집행은 여전히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집행에 대한 논쟁이 종종 불거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 소송은 기후배상책임법(climate liability law)의 출현을 이끌어내는 등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뉴욕과 버몬트 주에서 채택된 '기후 슈퍼펀드(climate superfund)' 법은 화석 연료 회사들로 하여금 기후 적응 비용 및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최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출범하며 향후 존속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개인과 보험사가 화석 연료 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법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사한 법안 역시 2025 년 4 월 캘리포니아 주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기업의 기후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법안 제정이 겪는 정치적 어려움이 여실히 나타난다. 한편, 필리핀과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선관주의 의무, 권리 보호, 기업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 소송은 특히 기업과 금융 기관에게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들이 최근에서야 ESG 리스크의 일부로 기후 소송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규제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인허가에 관한 일부 주요 소송이 이미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